

“친정엄마 연기, 눈물 꼭~ 참았죠”

두뇌 예능, OTT 타고 ‘활활’

‘데블스 플랜’·‘여고추리반’·‘크라임씬’ 등 새 시즌 공개 예정

6일 개봉 ‘3일의 휴가’ 김해숙

죽은지 3년째, 하늘에서 3일 휴가 딸 사는 모습 지켜보는 엄마 이야기 “세상의 모든 엄마 대표로 연기 가족의 소중함 깨닫는 영화 되길”

김해숙은 중견 배우 중 가장 다양한 얼굴로 관객과 시청자들을 만났다.

소매치기, 사기꾼, 왕후, 기업 총수, 슈퍼히어로까지 모래 여성 배우가 하기 어려운 역할도 척척 해냈다.

그때도 배우 김해숙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역할은 ‘엄마’다. 특히 영화 ‘우리 형’ (2004) ‘해바라기’ (2006), ‘친정엄마’ (2010) 등에서는 자식을 위해 희생하는 엄마를 연기해 극장가를 눈물바다로 만들었다. 그에게 ‘국민 엄마’라는 별칭이 따르는 것은 이 때문이다.

김해숙은 오는 6일 개봉하는 영화 ‘3일의 휴가’를 통해 오랜만에 푸근하고 따스한 엄마로 돌아온다.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난 지 3년째 되는 날, 지상으로 내려와 외동딸 진주(신민아 분)를 보게 되는 복자를 연기했다.

지난달 29일 종로구 한 카페에서 만난 김해숙은 “지금까지 엄마 역할을 정말 많이 해왔는데, ‘3일의 휴가’는 그중에서도 가장 의미 있는 작품으로 남을 것”이라면서 “이 세상 모든 엄마를 대표한다는 생각으로 연기에 임했다”고 말했다.

극 중 복자는 딸을 볼 수는 있지만 만지거나 말을 걸 수는 없다. 엄마에게 불효한 기억으로 괴로워하는 진주는 복자를 옆에 두고도 그의 존재를 느끼지 못한다.

김해숙 역시 9년 전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따뜻한 말을 제대로 헤드리지 못한 게 후회로 남는다고 했다.



그가 복자 역을 맡은 이유 역시 자신처럼 뒤늦게 후회하는 자식이 없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었다. “소중한 걸 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안다는 게 너무 가슴 아팠어요. 어머니한테 고맙다, 사랑한다, 미안하다는 말을 못 했거든요. 그때는 말하지 않아도 당연히 알 거라고, 언젠가지 말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 영화를 통해 많은 사람이 부모님과 가족의 소중함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김해숙은 어렸을 땐 자신이 진주 같았고, 엄마가 돼서는 딸들이 진주 같다고 했다. 그의 딸은 사회를 통해 ‘3일의 휴가’를 보고 메시지를 보내

“진주나 나 같아”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영화는 설정만으로도 가슴을 먹먹하게 하지만, 지나치게 신박극으로 기울지는 않는다. 김해숙은 “작정하고 울리는 영화”로는 보이지 않도록 톤을 잡는 데 연기의 방점을 찍었다고 말했다.

복자는 미국 명문대 교수직을 그만두고 고향에서 백반집을 하는 진주를 보고 “문디 가시냐”라며 끊임없이 잔소리한다. 진주가 자기 말을 들을 수 없는데도 이것저것 훈수를 두는 모습도 웃음을 안긴다.

코믹하게 시작한 영화는 모녀의 과거 이야기를 보여주며 어느새 관객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 김해숙은 관객들이 복자와 진주의 이야기에서 자기들의 모습을 발견하기 때문인 것 같다고 했다.

그는 답백하면서도 공감 가는 엄마의 이야기를 전달하기 위해 일부러 감정을 숨기고서 연기했다고 털어놨다. ‘3일의 휴가’ 관객은 울음이 터지지만, 연기하는 배우들은 거의 눈물을 흘리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마지막 장면을 위해 감정을 많이 아껴뒀어요. 민아 씨도 너무 슬픈데도 꼭꼭 참았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어디 가서 눈물로는 둘째라면 서러운 사람인데, 연기하면서 눈물이 나오는 거를 꼭꼭꼭 참았어요. 덕분에 그 장면은 한 번에 ‘오케이’를 받았지요.”

1974년 데뷔한 김해숙은 젊은 시절을 ‘워킹맘’으로 보냈다. 옛날에는 집에서 어떤 엄마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자식들에게 미안한 마음도 들었다고 한다. 하지만 가장 좋아하는 일이 연기였기에 이를 놓을 수 없었다.

그는 “왜 나는 일반 할까 생각한 적이 있는데, 가장 행복한 순간이 새로운 캐릭터를 가지고 작품 활동을 할 때더라”고 했다.

“촬영 현장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절 발견하고서 ‘어쩔 수 없구나’ 생각했어요. 내년이 데뷔 50주년이데 아직도 하고 싶은 역할이 있거든요. 정말 별의별 캐릭터를 다 해봤지만, 욕심을 좀 더 부린다면 조직의 보스가 돼서 제대로 된 액션을 해보고 싶어요.” /연합뉴스



‘428+591+972+...+603+298 = ?’

서울대 치과대학을 다니다가 다시 수능을 보고 만점으로 서울대 의과대학에 진학한 한 학생. 팔짱을 낀 채 복잡한 세자리 수 숫자 10개를 덧셈하라는 암산 문제를 응시한다. 약 14초 만에 계산을 끝내더니, 5773이라는 정답을 적고 유유히 걸어 나간다.

30일 방송가에 따르면 두뇌로 승부를 겨루는 서바이벌 프로그램이 잇따라 시청자들을 찾는다.

지난 3일 공개된 쿠팡플레이 오리지널 예능 시리즈 ‘대학전쟁’은 국내외 유명 대학교 재학생들이 각자 출신 학교의 명예를 걸고 오로지 두뇌로만 승부를 겨루는 서바이벌이다.

국내 고등학생들이 진학을 꿈꾸는 고려대, 서울대, 연세대, 카이스트, 포항공대 그리고 미국 하버드 대학까지. 난다 긴다 하는 똑똑한 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참가자들은 직접 체스판 위 말이 되어 킹을 잡는 ‘인간 체스’, 추리와 팀워크를 활용해 범인을 찾아내는 ‘시그널 수사’ 등 두뇌 게임을 거뜬하게 풀어내며 뛰어난 암산과 추리 능력, 암기력을 뽐낸다. ‘대학전쟁’ 김정선 작가는 “연합이나 블러핑(속임수), 배팅 또는 운에 의해 좌우되는 게임은 배제했다”며 “유추, 수리, 공간 및 지각, 암기 및 기억력 등 오직 두뇌 피지컬로만 풀 수 있는 게임을 지향했다”고 설명했다.

두뇌 서바이벌의 원조격인 ‘더 지니어스’, ‘탈출’ 등을 연출했던 두뇌 예능의 대가 정중연 PD도 신작을 내놓는다. 지난 9일 공개됐던 넷플릭스 ‘데블스 플랜’이 내년 중 시즌2로 돌아온다. 삼공을 두고 참가자들이 합숙하며 최고의 브레인을 가리는 예능으로 ‘더 지니어스’와 비슷한 포맷을 따른다.

참가자들은 암기력을 발휘해 다양한 정보가 담긴 그림을 20분 동안 외워 관련 퀴즈를 풀고, 알파벳이 적힌 블록들을 조합해 정해진 주제에 맞는 단어를 제한 시간 내에 만들어내는 등 수준 높은 미션을 수행한다.

“무식하게 외우는 게 아니라 여러 함정을 알아내서 맞춰야 하는 문제들도 있어 참신하고 재밌다”, “같이 머리 쓰는 재미가 쏠쏠하다”, “두뇌 게임뿐 아니라 심리전 등 볼거리가 많아 흥미롭다”

등의 시청자 반응이 나왔다.

‘데블스 플랜’은 스트리밍 서비스 순위 집계 사이트 플릭스파트론에 따르면 공개 이틀 만에 넷플릭스 전 세계 글로벌 톱10 7위에 올랐고, 국내에서는 공개 하루 만에 대한민국 톱10 시리즈 2위를 차지했다.

정 PD의 또 다른 신작 ‘미스터리 수사단’도 최근 제작을 확정했다.

일반적인 부서에서는 해결할 수 없는 특수한 사건만을 전담하는 수사단에게 벌어진 기묘한 사건을 추적해가는 예능이다.

코미디언 이용진, 이은지, 가수 준박, 이혜리, 배우 김도훈, 그룹 에스파의 카리나가 출연하며 내년 공개될 예정이다.

범인을 찾아내는 추리 예능 ‘크라임씬’도 약 7년 만에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크라임씬 리턴즈’로 돌아온다.

실제 범죄 사건을 재구성한 상황에서 출연자들이 직접 용의자 및 관련 인물이 돼 범인을 밝혀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 시즌에서 활약했던 장진 감독, 방송인 장동민, 박지운을 비롯해 샤이니 키, 아이브 안유진, 주현영 등이 새롭게 합류하며 지난 시즌들을 연출했던 윤현준 PD가 그대로 연출을 맡는다.

티빙 ‘여고추리반’도 새로운 시즌으로 돌아온다. 엘리트 여고등학교를 배경으로 하는 ‘여고추리반3’은 학교의 숨겨진 비밀을 파헤치기 위한 추리반의 활약을 그린 예능이다. 원년 멤버인 박지윤, 코미디언 장도연, MC 재재, 가수 비비, 최예나가 그대로 출연한다.

이전 시즌을 연출했던 정중연 PD는 하차하고, 지난 두 시즌을 함께 만들었던 임수정 PD가 연출을 맡는다.

마니아층 위주로 인기를 누렸던 두뇌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들이 이처럼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Over the Top)를 타고 점점 대중적으로 진화하면서 출연진도 다양화하고 있다.

김성수 대중문화평론가는 “전체적인 출연자보다 나와 비슷한 플레이어들을 보여 참여의 재미를 느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점점 더 환영받는 추세”라며 “시청자들도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난이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지상파 3사 연말 시상식 채비

연예·연기·가요 대상 시상식 진행자 등 확정

지상파 방송사들이 연말을 앞두고 속속 연예대상과 연기대상 등 주요 시상식 진행자와 일정을 확정하고 막바지 준비에 들어갔다.

KBS는 다음 달 23일 서울 여의도 신관 공개홀에서 연예대상 시상식을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MC는 방송인 신동엽과 배우 조이현, 주우재가 맡았다.

MBC는 다음 달 29일에 연예대상, 30일 연기대상 시상식을 각각 진행할 예정이다. 연예대상 MC는 전현무와 이세영, 텍스가 맡았으며 연기대상은 김성주와 박규영이 진행할 예정이다.

SBS는 다음 달 30일 서울 마포구 삼양동 프리즘타워에서 연예대상 시상식을 진행하며 MC는

이상민, 이현이, 김지은이 맡았다.

K-팝 가수들을 볼 수 있는 가요 행사 일정도 대부분 윤곽이 잡혔다.

KBS는 다음 달 15일 ‘K-팝 글로벌 페스티벌’을 1부와 2부로 나눠 방송한다. 각각 1부는 로운, 장원영이, 2부는 로운, 고민시, 이영지가 진행한다.

‘K-팝 글로벌 페스티벌’은 KBS가 매년 말 진행해온 ‘가요대축제’를 대신할 프로그램이다. 1부는 KBS 홀에서 생중계되며 2부는 다음 달 9일 일본 사이타마현 베틀나둠에서 진행할 공연 녹화본



KBS 연예대상 진행을 맡은 신동엽, 조이현, 주우재

을 방영할 계획이다. SBS ‘가요대전’은 다음 달 25일 옐리머 샤이니 키,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연준, 아이브 안유진이 MC로 나선다.

보통 한 해의 마지막 날인 12월 31일 열리는 MBC의 ‘가요대제전’은 아직 일정과 MC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연합뉴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꽃게랑 약선반찬 전집
광주 북구 운암1동 황계로 27-1
간장게장, 양념게장, 모듬전, 김치류전문
제사음식, 반찬메뉴, 흥어무침, 추어탕
오리탕, 나물종류 등 사전예약 가능
☎ 010-2315-2058

금남로 사주 카페
금남로 4가 50번지(원각사 바로 옆)
궁합, 신수, 작명, 운수 판단
☎ 010-7495-1577

성수동골짜배기나주영산포점
전남나주시예향로3778, 영산포5일시장 건너편
골짜배기2개 1000원, 옛날함도그1개 1000원
치즈함도그1개 1500원, 찰떡도너스2개 1000원
팔도너스1개 1000원, 흑임자도너스1개 1000원
☎ 061)337-7987, 010-7732-6955

면쟁이
동구산수동 518-14, 광주은행 산수동지점 건너편 위
다양한 각종 면요리와 생과일주스
75세이상 어르신과 금식카드 고객 50%할인판매
우동모듬, 죽 등 다양한 면요리 전문점
☎ 010-5459-9664

(주)쓰리에이치광주대인센터
광주시 동구 구성로 215, 4층
운열, 지압, 뜸, 마사지가 가능
의료기·발명·특허·우수조달물품
☎ 062)573-3112, 010-8221-3119

석당화랑
동구공동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
고서화유탁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

박당화랑
광주동구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화화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 062)222-6866

필스제화
동구산수동 553-73(산수5거리옛글리리쪽)
구두수선 남화·여화창 굽깔이
가방지퍼수선·염색·광택
☎ 010-4755-9294

인철(仁喆)익스프레스
북구 신안동 764-10번지
포장·일반이사, 화물운송
“저층에서 고층사다리 보유”
☎ 062)572-2323, 010-9509-4422

무크광주세정점
광주시서구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1층 151호
심플하고 옛지있는 스타일의 가을신상품 출시
남·여화 20~40% 세일
(일부 품목은 제외)
☎ 062)370-9151

법무사 황영수 사무소
광주시 동구 지산로 78번길 13, 검월청담벼락빌
소송, 민사집행, 민사신청, 공탁, 가사,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각종 법률무료상담
☎ 062)226-9966, 010-3002-0816

초대화랑
동구공동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

도명명리심리연구소
광주 남구 봉선동 금호 2차 205동 203호
학업, 적성, 진로, 상담/사주, 궁합, 택일 등
소장 박관용 ☎ 010-4573-9059
(광주교육대학 평생교육원 강사)

남도철학원
북구 전변우로 79번길 87(임동)
수강생 수시모집! 사주, 적성, 출산, 택일
명리비전으로 수강생 개인지도
☎ 062)522-9653, 010-8645-2254

송가네 반찬
광주시 남구 백운로 99번길 2
각종 반찬 주문
☎ 062)672-9809, 062)672-6376

다흥치마 한정식 전문
광주시 북구 독립로 251
한정식, 고등어구이, 주물럭, 생뽕, 갈치구이
☎ 062)233-9952, 010-4469-0360

작곡가김기범노래교실
광주 동구 계림동 331-4
(계림동로타리 옛 계림오거리입구 3층)
전자오케니로 직접 연주, 개인지도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방음 완비
☎ 062-225-4445, 010-3603-3064